
		<b>보 도 자 료</b>		수도권매립지 종료
		배포일자	2021년 7월 28일(수) 총 3매	 환경특별시 인천
담당 부서	시민정책 담당관실	담당자	• 시민정책팀장 안성아 ☎440-2186 • 담당자 이영란 ☎440-2187 고재근 ☎440-2419	
사진	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
보 도 시 점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
## 인천시, 전국 최초 상설 숙의시민단 구성

- 시의 갈등 사안을 둘러싼 쟁점들을 숙의해 갈등의 예방과 해결 방안 모색, 인천시에 권고 -

- 크고 작은 갈등 해결하는데 큰 역할 할 것이라 기대 -

인천광역시(시장 박남춘)는 7월 27일 인천시민 500여명을 숙의시민단으로 구성해 온라인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.

이날 행사는 박남춘 인천시장의 환영사, 인천시 공론화·갈등관리위원장 축사, 갈등관리추진위원장의 「숙의시민단의 과제와 역할」 교육 및 참여시민 소감 발표 등으로 진행했다.

이 날 위촉된 ‘숙의시민단’은 인천시 전체 시민의 성별, 연령별, 지역별 비례를 고려하여 무작위로 추출해 구성했다. 선발된 숙의시민단의 구성 자체가 ‘작은 인천시’인 셈이다.

숙의시민단은 인천시 중점갈등관리대상사업, 갈등의 영향범위가 2개 이상인 군·구의 사안 및 공공갈등 해소를 위해 적극적 시민의견이 필요한 사안들에 대해 향후 2년의 임기 동안 시의 다양한 갈등 사안

을 둘러싼 쟁점들을 숙의하여 갈등의 예방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, 인천시에 권고하는 역할을 한다.

앞서 시는 광역지자체 최초로 공론화위원회를 상설화해 친환경 폐기물 관리정책 전환과 자체 매립지 조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한 바 있다.

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공론화가 대규모 시민을 한자리에 모아 진행했던 것과 달리 숙의시민단은 숙의 사안에 따라 50명 이내의 시민들이 모여 숙의를 진행함으로써 작은 규모의 효율적 공론화를 통해 갈등현안에 대한 숙의 후 권고를 하게 된다

지역적·개별적 사안에 대해 신속하고 활발하게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중소규모 공론화의 틀을 새롭게 만든 것이다.

박남춘 인천시장은 온라인 환영사를 통해 “심도 있는 숙의과정을 통해 제안해 주실 중립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은 인천시의 크고 작은 갈등을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한다” 고 말했다.

또한, 원혜옥 인천시 공론화·갈등관리위원장은 “상설적 숙의시민단 운영은 전국 최초로 시도되는 기획으로, 규모가 작아 시민들의 깊이 있는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” 라며 “향후 정책추진과정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므로 성공적인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다” 고 말했다.

※ 관련 사진은 행사 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 '보도자료'에 게시될 예정입니다.